



한국평생교육교육연합회, 시민소통 워크숍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이사장 서동균)가 최근 광주시 동구 컬쳐호텔에서 '2024 광주 지역 시민 소통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서용규 부의장, 명진 교문위원장, 홍기월 예결위원장, 이준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현황과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식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져 평생 배워야 하는 평생교육 시대에는 마을이 곧 학교가 되어야 하며, 공교육과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들이 연대해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평생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이 교육감과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명진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평생교육사와 미용학사, 사회복지사 10여 명에 대한 수료식과 자격증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찬 기자



광주교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광주교통공사가 최근 에너지 경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한국에너지대상'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기관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개최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시상에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지역에너지 절감 및 R&D 사업 동참 △역사 방풍문 설치와 공기시스템 최적 운영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경영 활동을 실천해 탄소저감 녹색 도시 광주 구현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에너지 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광주의 2045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ACC-5·18기념재단, 콘텐츠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달 29일 5·18기념재단과 ACC회의실에서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계승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동개발 및 유통·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이강현 ACC 전당장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 육성과 진흥,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5·18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아시아평화기억하기 네트워크 운영 △역사공간 활성화 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자리한 ACC는 오월정신을 다양한 예술로 승화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5·18기념재단과 함께 민주·인권·평화 가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장에 김용모 광주대 교수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8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김용모(64) 광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3일부터 2년 임기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사진)

김 신임 원장은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시각·포장디자인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조경·환경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디디자인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1년부터 광주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디자인 연구활동과 함께 창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산업·환경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로서 디자인진흥원의 경영은 물론 디자인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 미래 디자인의 먹거리 발굴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명예 6단 단증 수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택견회로부터 명예 6단 단증을 수여받았다. (사진)

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택견회는 이날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대상으로 명예 6단 단증 수여식을 가졌다.

전 회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5년 만에 택견 종목 광주시 대표선수를 선발, 출전시켜 종목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6단 단증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택견 명예 유단자로서 택견 종목이 인기종목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국가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 광산소방, 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광주 광산소방은 지난달 29일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광산구 송정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택·상가밀집 지

역에서 매달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광산의용소방대원 20명과 합동으로 겨울철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



빛고을안전체험관,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달 30일 체험관에서 안전을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재난상황 등에 더 취약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안전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3여회 화재안전 등 8개 체험교육과 소방안전 상식 퀴즈대회,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또 포토존을 활용한 가족 추억사진 촬영, 소정의 기념품 및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소방, 화재조사관 전문 위탁교육 실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2주간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화재조사관 36명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동차 구조·주요 부품 등을 직접 관찰하고, 교수들과 화재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자동차 화재는 매년 100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과 구조가 다르고 다양한 전기 장치로 인해 화재조사관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조·작동 원리 △주요 부품 등에 대한 설명과 실습 △차량화재 사례 공유 및 원인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동강대 보육복지학과 1학년 '사회복지사 선서식'

동강대 보육복지학과는 지난달 26일 학교 인문사회관 410호에서 '2024년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사회복지사 선서식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정체성 확립과 자기 성찰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동강대 보육복지학과는 2022년부터 겨울방학 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선서식은 보육복지학과 1학년 50여 명이 지난 1년간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촛불 점화에 이어 '소외된 이웃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사회복지사 선서로 진행됐다.

보육복지학과 1학년 대표 이남준 씨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되새기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